

인문정신문화 꽃 피운다

순창군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개설 올 30개과정 813회 운영

순창군립도서관이 올해도 독서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인문정신문화를 꽃 피울 예정이다.

군립도서관은 지난 11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해 수강생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30개 과정에 총 813회를 운영한다.



순창군립도서관이 독서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인문정신문화를 꽃 피울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문학강좌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힘을 키우는 인문학' 강좌에 역점을 두고, 통섭형 인문정신을 실현할 '인문독서아카데미'를 6개월간 20회 진행한다. 더불어 강연과 현장 탐방이 결합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청소년 과학 강연 '10월의 하늘', 인문학과 예술이 만나는 인문 콘서트,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는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인문카페' 등도 진행한다.

올 4월 23일에 열린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머무는 곳에서 언제든 손에 닿고 읽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관내 어린이시설 30곳에 총 6,000권의 책을 기증한다.

이 도서는 6,000만원 상당의 신간도서로 국군문화진흥원(이사장 최병현)에서 기증받아 진행한다.

순창군에는 규모 있는 서점이 없고, 어린이 기관의 예산도 넉넉치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진정한 '책의 날' 의미를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유아가 책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북스타트', 노년층 독서나눔 활동인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 봉사단'도 운영하며, 도서관 상주작가가 문화큐레이터로 활동하며 기획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수화교육,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대상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도 올해 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커뮤니티 문화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계, 구림, 생치면(개관예정)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문화가 숨 쉬는 순창은 책을 읽고 생각하며, 공부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관 프로그램의 참여를 원하는 수강생은 전화(650-5678) 또는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생장, 남원 화장품 집적화단지 입주

㈜생장(대표이사 이종오)이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내 특화단지인 화장품 집적화단지에 입주 지난 15일 착공식을 가졌다.

㈜생장은 7,051㎡ 부지에 연면적 1,980㎡의 공장을 짓기로 하고 준공은 9월 예정으로 준공과 동시에 현재 전주본사도 남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생장은 지난해 9월 남원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지를 분명히 해 왔었다.

이번 판매장과 체험장을 갖춘 생산시설의 착공으로 화장품 제조에만 머물지 않고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로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생장이 남원시 특화단지인 화장품집적화단지에 입주했다.

이를 위해 토종알로에인 생장알로에의 재배 확대와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6차 산업으로 발전을 염두해 둔 포석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남원시의 육성지와 산업 인프라 조성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상호협력력이 확대되고 기업이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재훈 기자

순창군, 원포인트 레슨으로 국가예산확보 지름길

순창군이 2020년 신규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전북도 경제협력단장을 초청해 군청 3층 회의실에서 200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과 신규사업 발굴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허 단장은 7급 공채 출신으로, 1994년에 공직에 임용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20년 가까이 중앙부처에 근무하며 재정 관련분야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의 적재적소에 원 포인트 레슨으로 공무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기재부나 부처가 반대할 때는 정확히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이라며 "추적하거나 감정이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임실군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효심행정 이번지 노인일자리 사업 본격화

임실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통합 발대식

임실군이 효심행정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군은 지난 15일 임실군민회관에서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통합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통합발대식에는 심 민 군수와 신대용 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들과 본 사업의 수행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임실군노인복지관 참여자 등 1,3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봉사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참여자들의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 등에 1,294명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돈 벌이를 벗어나 동료들과 어울리고 사회참여를 통해 노년기 역할 상실에서 오는 우울감을 극복하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노인복지로

꼽히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완료하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목욕쿠폰 지급 등 다양한 효심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민선 7기 대표공약으로서 질병에 취약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도 전개, 의료서비스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의료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중심의 효심 행정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령층을 배려한 맞춤형 정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23일 지리산 산수유 축제

봄의 전령사 산수유 꽃이 만개하여 너울너울 춤추는 지리산자락 주천면 용궁 마을에서 제10회 지리산 산수유 축제와 경로잔치가 오는 23일 열린다.

제10회 지리산 산수유 축제는 주천 농악단의 풍물놀이로 시작해 기념식, 경로 위안잔치, 참여행사 및 부대행사로 진행하며 산수유 축제와 함께하는 경로 위안 잔치에서는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600여명 초청, 점심식사 대접과 산수유 가족 풍요제, 노래자랑과 사물놀이, 예술 공연 및 산수유 노래자랑 등 감사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만수무강과 행복을 기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하신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산수유꽃 돌담길 걷기, 소원리본달기, 국립공원 체험행사, 이월치료 및 네일아트 행사를 실시하며 산수유 짜장면 무료식사와 산수유 차 시음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한다. 산수유꽃 축제 행사장소인 주천면 용궁 산수유군락지는 100년 이상된 산수유로, 마을 길을 가르는 돌담에 피는 산수유(꽃말: 영원한 사랑)같은 연인이 함께 걸으면 사랑이 절로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

박준희 발전협의회장은 "돌담길 사이로 피어 있는 산수유를 보기위해 마을을 찾아오는 가족, 연인들이 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아름다운 봄내음과 풍경을 가슴에 듬뿍 담아 가시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받아갈 수 행복하고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순창군, 청년농업인 창업 모색

최근, 청년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귀농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고 있지만 잇따른 선풍파로 귀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년농업인 창업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근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금과 경영실습농장은 군에서 21억원을 들여, 600평 규모의 연동형 스마트 비닐 온실을 총 7동 신축해 내년에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전북도 예산지원이 뒷받침돼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청년형 팜플렛팜 사업은 43억원을 투자해 제작실습실 신축과 실습장비 구입, 아이디어 상품개발과 지역농산물 가공제조 실습, 사업아이템별 맞춤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청년농업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필요한 시설과 지원사업을 늘려 나가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선정

남원시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남원시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춘향골 톨러 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을 포함하여 총 4개소의 사업이 선정되어 18억4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 중 춘향골 톨러 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은 총 30억원(국비 9, 시비 21)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매년 국제 경기가 개최되는 야외 시설로 비가림시설 설치 및 관람석

개보수 등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3개의 사업으로는 춘향골체육공원 주경기장 관중석 보수공사, 용성고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주생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남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되어 2020년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행사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